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1
River & Culture



최혜은 | (주)펜타코드 기획팀장
(ddoicome@pentachord.com)

승기천의 역사와 문화

이름조차 없던 '넷가' 승기천

염전 사이로 난 갯골을 따라 흐르던 개울, 연수구 동춘동 동막에서 14대째 살아오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낯선 이름. 승기천이라면 분명 하천을 이야기할텐데 위치나 생김새 등 하천과 관련된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승기천 즉, 하천 이름이 승기가 된 것은 옛날에 폐허였던

마을이 다시 생겨나서 이어지면서 이을 승(承)과 터 기(基)자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승기천이라는 이름은 옛 서적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삼국사기'나 '고려사', '동국여지승람'은 물론이고 '대동여지도'에조차 언급되지 않은 이름이다. 세월을 거치면서 누군가 만들어 낸 명칭으로 보여진다.





승기천의 과거 물길과 현재 물길

발원지를 잃어버린 승기천

승기천의 발원지는 남구 주안동이라는 설과 용현동이라는 주장이 있다. 발원지로 추정되는 일대가 모두 주택가로 개발되어 정확한 지점이나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 옛날에는 남구 관교동을 지나 남촌동을 거쳐 논현동 앞바다를 거쳐 서해로 흘러들었지만 구불구불한 물길의 모습은 수로를 바꾸고 직강화 공사를 하여 동춘동 동막부락 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구한말엔 선학동 뒤 현재의 문학경기장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 고가가 지나가는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연수구 옥련동은 물론, 연수동, 청학동, 선학동까지를 '먼우금'이라 했다. 원우금(遠又畝) 또는 원우이(遠又爾)라 했다.

조선시대 먼우금면이었던 이곳은 남동구 조동면(鳥洞面)을 사이에 두고 갯골이 길게 뻗어 있었다. 먼우금에서 조동면까지 가려면 한참을 멀리(遠) 돌아서 가야 하지만(又), 배로 건너면 가깝다(爾)는 뜻이었다.

남촌동은 1988년 전까지 남구 선학동에 속한 마을이었으나 남동구 도림동으로 편입됐다가 1991년 도림동에서 분리되었다. 남촌동은 인천도호부청사가 자리한 문학산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남동공단과 연수택지로 변했지만 구한말까지 '염말'이라고 불렀던 곳이다. 바닷물을 끌어 소금을 만드는 자염밭이 많았기 때문에 붙여

진 이름이었다.

논현동의 옛 이름은 논고개로 구한말까지 인천부 남촌면에 속해 있던 마을이었다. 1903년 인천부가 동네 이름을 확정할 때 논고개 마을과 모래마을이 있다 해서 논현리 사리동(沙里洞)으로 됐다가 1906년 논현동으로 바뀌었다.

승기천의 원래 물길은 연수구 선학동~남동구 남촌동~논현동 등 갯골을 따라 흘렀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100여전의 승기천 주변은 갯골로 이루어진 개흙밭으로 남동갯벌이라 불리웠다. 승기천 하류에 위치한 남동유수지는 선착장이 있어 배를 탈 수 있었고 지금은 사라져 버린 대원예도와 소원예도라는 섬이 있었다.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동네 언저리에는 필요한 물을 저장하기 위한 방죽들이 있었고 소금을 만들기 위해 바닷물을 가둬놓는 저수지도 여러 군데 있었다. 갯골을 통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다 보니 산란철이 되면 바다에서 민물로 올라오는 습성이 있는 뱀장어들이 흔했다고 한다.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동네 언저리에는 필요한 물을 저장하기 위한 방죽들이 있었고 소금을 만들기 위해 바닷물을 가둬놓는 저수지도 여러 군데 있었다. 갯골을 통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다 보니 산란철이 되면 바다에서 민물로 올라오는 습성이 있는 뱀장어들이 흔했다고 한다.

뿌리 깊은 역사의 도시 인천

인천의 옛 이름 미추홀은 삼국사기에 따르면 주몽의 아들인 비류가 도읍한 곳이다. 인천대공원으로 넘어가는 고개(성현)를 비류가 넘던 고개라 해서 비류고개라고 부른다. 백제 초기역사에 대해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도 혼란스러워 했다. 삼국사기 내에서도 모순이 발견된다. 대체로 "위례성에 도읍한 온조가 미추홀의 비류세력을 흡수해서 백제로 발전하였다"로 정돈된다.

인천지명은 미추홀(백제)-매소홀(고구려)-소성현(신라)-인주(고려)-경원군(고려)-인천(조선)-부천군(일제)-인천직할시(대한민국)-인천광역시 등으로 바뀌었다. 정치적 위상에 따라 정치적 변화와 깊은 관계를 가지며 바뀌어온 것으로 보인다.



동여도의 인천(1860)

기원전 1세기,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인천의 옛 지명 미추홀(彌雛忽)은 소서노와 그의 큰아들 비류가 고구려를 떠나와 터를 잡은 도읍지였다.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 유리가 왕권을 이어 받게 되자 비류는 온조와 함께 남쪽으로 이주해 비류는 미추홀에 도읍지를 정한 것은 소금과 해산물을 얻을 수 있고, 해양 교역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추홀 또 매소홀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으로 문학산 일대가 물로 둘러싸여 있어 '물의 고을, 물골'이라고 했다. 미, 매는 물의 옛소리이고 가운데 글자인 추, 소는 사이사잇 역할 또는 2받침이 변한 것, 홀은 고을을 뜻한다. 삼국사기에 물을 매(賈), 미(米)라고 한다.

승기천 주변의 문화재

능허대

- 지정번호 : 인천시 기념물 제8호

- 지정일 : 1990년 11월 9일

- 소재지 :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해동지도(인천부) 사모지 고개

백제가 중국 동진과 통교를 시작한 근초고왕 27년부터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개로왕 21년(475년)까지 사신들이 중국을 왕래할 때 출발했던 나루터가 있던 곳이다. 현재 터만 남아있다.

백제와 동진이 통교하던 당시 한반도의 정세는 백제·고구려·신라 삼국이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을 때였다. 중국에서도 남북조(南北朝)가 서로 대립하고 있어 주로 남조와 통교하던 백제의 사신들이 중국을 왕래할 때 고구려를 통한 육로를 사용할 수 없어 능허대 밑에 있던 한나루를 이용하여 산둥반도로 왕래하였다.

위치적으로 능허대가 있던 자리는 남조에서 온 사신들이 귀국할 때 배가 출항하기를 기다리기도 알맞고, 그들을 배웅하는 백제의 관원들이 멀어져가는 배를 지켜보기에도 적당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조성되어 아파트와 유원지가 들어서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었다. 다만 나루터가 있던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자리를 기념물로 지정하여 작은 정자와 연못을 갖추어 놓았다.

원인재(源仁齋)

- 지정번호 : 인천문화재자료 제5호
- 지정일 : 1990년 11월 9일
- 소재지 : 인천 연수구 연수동 286-10



원인재(源仁齋)

인천이씨의 중시조인 이허겸의 묘려(墓間)로 묘려의 명칭을 원인재라고 한 것은 인천이 인천(仁津)이씨 각 파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인재는 인천이씨 중시조인 이허겸의 재실이다. 팔작지붕 형식인 이 건물의 건립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32대 손이 쓴 [원인재기]와 33대 손이 쓴 원인재 상량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순조 7년(1807) 또는 고종 4년(1835)인 것으로 추측된다. 원인재는 신연수역과 원인재역을 잇는 길 중간에 있다. 인천이씨 중시조 이허겸을 모신 재실로, 원인재 옆에는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 언덕 한가운데에 시조 이허겸의 묘소가 있다.

원인재가 위치한 연수동 548번지 일대는 과거에 간치도라 불렸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까치섬'이다. 이곳을 칭하던 또 다른 명칭으로는 '연화부수지'가 있는데, 이 말은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형상을 말한다. 실제로 시조 이허겸의 묘소가 자리한 언덕은 송도 갯벌이 연수구가 개발되기 전만 하더라도 물이 들어오던 곳으로, 마치 작은 섬이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시조 이허겸 묘가 1천여 년이 넘도록 이 자리를 고수해 온 것에 반해, 원인재 자리는 여기가 아니었다. 원래 연수구 연수동 적십자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왼쪽의 신지마을에 있었

으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철거당하게 되자 인천이씨 대종회가 나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의 묘역으로 옮겨져 복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로부터 자연녹지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불하 받아 부지를 조성했고, 지방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돼 199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시문화재자료 제5호로 지정되었다.

이허겸은 고려시대 외척 세력인 이자연(李子淵)의 할아버지이다. 이자연은 세 딸을 고려 문종의 비로 혼인시켜 세력을 장악하였다.

이허겸을 시조로 모시는 인천이씨의 본래 선대는 가야국 김수로왕의 둘째 아들로 전해진다. 이후 고려조가 들어서면서 인천이씨는 본격적으로 권력과 영화를 누리게 된다. 인천이 7대 어항이라고 불렸던 것도 인천이씨 일가에서 왕의 내외향이 나온 것에서 비롯되었다.

문학산성(文鶴山城)

- 지정번호 :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호
- 지정일 : 1986년 12월 18일
- 소재지 : 인천 남구 문학동 산27-1외 2필

문학산성은 능허대 등의 유적과 함께 여러 고지대에 등장하는데 문학산 정상에 축성된 문학산성은 미추홀의 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산성은 흙으로 쌓은 내성과 산정상 부위의 가파른 자연 지형을 이용해 외성을 둘러 축성한 소위 '데미식 성곽' 구조로 알려져 있다.

미추홀 고성, 남산고성(南山古城)이라고도 불리며, 돌로 쌓아 둘레가 430척이나 되었다고 전한다. 인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처음에는 토성이던 것이 삼국말 혹은 통일신라를 거치면서 석성으로 개축되었고, 이것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성내에는 토축의 내성, 봉수대, 비류의 우물터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도호부청사(仁川都護府廳舍)

- 지정번호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인천 도호부청사

- 지정 일 : 1982년 3월 2일

- 소재지 : 인천 남구 문학동 343-2

도호부는 조선시대 행정기관의 하나로 상급기관인 목(牧) 과 하급기관인 군(郡) · 현(縣) 사이에서 행정을 담당했던 관청이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을 8도(道)로 나누고 도(道) 아래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을 두고 지방행정업무를 관장하였다.

인천에 도호부가 설치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초기 학자이자 명신(名臣)인 강희맹(姜希孟)이 쓴 “인천부승호기(仁川府陞號記)”에 1424년 이미 객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최소한 그 이전에 도호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도호부에는 당초 왕권의 상징인 객사(客舍)를 비롯하여 부사의 집무처인 동헌(東軒), 내동헌(內東軒) 등 15~16동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는 현재는 문학초등학교 교정에 객사와 동헌 일부만 보존되어 있다. 이곳에 복원한 건물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花島鎮圖>를 근거로 객사, 동헌, 공수 등 7동의 건물을 복원하였다.

도호부사는 도호부의 모든 행정을 통괄하는 자로서 그 주된 임무는 수령칠사(守令七事)라 하여 ①농사와 누에치는 일을 잘 돌볼 것 ②인구를 늘릴 것 ③교육을 진흥시킬 것 ④군대에 관한 사무를 바르게 할 것 ⑤부역 등을 균등히 할 것 ⑥민사의 소송을 바르게 할 것 ⑦간교하고 교활함이 없도록 할 것 등 지방수령의 공통임무에 속해 있으며 지방관의 치적은 관찰사를 통해 매년 임금에게 보고되었다. 또한 유사시에는 군대를 지휘하여 전투에 임하는 등 군사지휘권도 장

악하고 있었다.

승기천 주변의 문화행사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Inchen International Clown Mime Festival)



인천 클라운 마임 축제

클라운 마임은 피에로와 어릿광대가 몸짓과 표정으로 표현하는 무언극으로,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스트리트 마임(Street Mime)이라고 부른다. 클라운 마임 장르의 예술성을 인식시키고 대중화시켜 인천광역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

해 클라운마임협회가 주최하고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준비위원회와 작은극장 돌체, 극단 마임이 주관하는 국제적인 행사이다.

매년 20여 명의 한국 마임 배우들과 일본·독일·미국 등에서 20명의 외국 마임 배우들이 참가하는, 인천의 국제적인 축제이다. 승기천 인근 인천도호부청사 등의 야외무대와 작은극장 돌체에서 클라운(광대) 마임 배우들이 저글링, 마술, 아크로바틱, 비주얼마임, 난버벌마임, 피지컬마임 등의 각각의

테마를 담은 수준 높은 작품으로 공연을 펼친다.

능허대축제



능허대 축제

능허대축제는 인천시 연수구 주최로 인천시 지정기념물 제8호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능허대는 백제 근초고왕 27년(서기 372년)에 중국 동진과 교류를 위해 배를 띄운 곳이다. 당

송팔대기의 한명인 소동파의 적벽부(赤壁賦)에서 따온 ‘능허’는 만경창과(서해)를 하늘로 날아가는 듯 항해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당시 백제는 능허대를 출발하여 현재의 웅진군 덕적도를 거쳐 산둥(山東)반도로 사신을 보냈다. 이는 당시 서행에서 중국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뱃길이었다.

능허대는 “하늘을 높이 나른다”라는 뜻으로 중국의 옛 시구에 자주 나타나는 말로서 백제 근초고왕 27년에 중국과의 교류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로 인해 서해안의 물류와 중심이 되었던 곳이다.

사신행렬 재현등 능허대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동시에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구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 삶의 질 향상, 문화 향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류와 소통, 새로운 공동체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

